

Garden of Regrets

April 21, 2024

Bo Stern-Brady

회한의 정원

4월 21일, 2024년 보 스텐-브레이디

The cry of my heart for a few years now has been: freedom. I am getting old enough that I see so many people around me that are my age and still bound up by stupid stuff. Enslaved to bitterness, addiction, anger, envy, pride, anxiety...they've lived with those chains so long they don't even recognize that life is possible without them.

내 마음의 외침은 몇 년 동안 자유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내 나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 같은 것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디쓴것, 중독, 분노, 질투, 자부심, 불안에 노예처럼 되어 그 체인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니고 있어 그것들 없이도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 합니다.

Jesus: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35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36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예수님: 죄를 지으면 그 죄에게 노예가 됩니다. **35** 노예는 가족에서 영원한 곳이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가족에 속합니다. **36**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가 될 것입니다.

This feels really big to me...like goosebump-raising big. When you realize you are truly a son or daughter of God...when are able to fully receive and live into the love that He offers - you will be FREE. Truly free. This is what I want. 이것은 정말 크게 느껴져요... 오싹하게 큰 느낌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임을 깨닫게 되면... 그가 제공하는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면 - 당신은 자유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Freedom is about Lordship. Not just the list of things you've chosen to believe about Jesus, but the way you've invited Him into the garden of your life to let Him walk around and feed and water and pull some weeds. 자유는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믿는 것들의 목록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활의 정원으로 그를 초대하여 그가 거기서 걷게 하고 먹이고 물을 주며 잡초를 뽑게 하는 방식입니다.

Weed-pulling is hard. I hate it. It's backbreaking work. And weed-pulling in our own gardens is especially hard because we've grown used to some of the weeds and don't even recognize that they're choking out the life of other things. Or some of them are just really, really hard to get rid of (those things in our yard - horse tails?) OR...some of them look pretty. I love Queen Anne's lace, but it spreads rapidly and kills the rest of the life in a garden. IN some places it's known as devil's plague. SO...weed pulling can be tricky business. The apostle Paul understands this. He writes LOTS Of weed-pulling letters to the early church. Most of his letters, in fact, are at least some of that.

Some encouragement, some correction. One of the most direct is 1 Corinthians. (Little bit of history).

잡초 뽑기는 힘들어요. 저는 싫어합니다. 그것은 몸을 꺾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원에서 잡초 뽑기는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부 잡초에 익숙해져서

그것들이 다른 것들의 생명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일부는 정말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원에 있는 것들 -
말꼬리같은 것들?). 또는... 일부는 예쁘게 보입니다. 나는 **Queen Anne의 lace**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퍼져 정원의 나머지 생명을 죽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악마의 전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잡초 뽑기는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해합니다. 그는 초기 교회에 많은 잡초 뽑기 편지를 씁니다. 사실 그의
대부분의 편지들은 그런 내용의 일부입니다. 격려, 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조금의 역사).

He talks to them about:

- Division and Disunity
- Sexual Immorality
- Lawsuits Among Believers
- Disorder in Worship:
- Resurrection of the Dead ...addressing doubts and misunderstandings among some Corinthian believers (1 Corinthians 15).

그는 그들에게 다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분열과 불화

음란행위

믿는 자들 사이의 소송

예배에서의 무질서:

죽은 자의 부활 ... 코린토의 일부 믿는 자들 사이의 의문과 오해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5장**).

These were fellow believers - he calls them brothers and sisters - they are IN the garden that is the church. But they have brought their weeds in with them and it is impacting the whole garden. So he writes them a letter about lordship - how does His lordship look in your disagreements, in your sexuality, in your management of your hurt or your money, in your worship. And then he waits...wondering if they still love him or not. Wondering if he could've said it differently or maybe saved some stuff for later or taken a path of less resistance. (I've had this same experience as both a pastor and a parent more times than I can count.) What would the church in Corinth do with this letter? What would they do with the pain that the letter caused? How would they respond to the messenger of pain? That's 1 Corinthians.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 그는 그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 그들은 교회라는 정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잡초를 가져왔고, 그것은 전체 정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권에 관한 편지를 씁니다 - 당신의 의견의 불일치, 성적 도덕성, 상처나 돈, 예배에서의 그의 주권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기다립니다... 그들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중에 저장할 수 있었을까, 또는 덜 저항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목사와 부모로서 이 경험을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코린토의 교회는 이 편지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편지가 일으킨 고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고통의 전하는자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2 Corinthians is Paul's followup letter. It's beautiful and we're going to camp out in one section of it for the rest of our time together and see what Jesus might want to say to us as we also tend our gardens and the garden that is B4 church...as we work to cultivate something that flourishes for generations...not fields of Queen Anne's lace - stuff that grows fast, looks pretty and eventually snuffs out the life of everything else.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후속 편지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것의 일부분에 깊게 파고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원과 **B4 교회**라는 정원을 돌보는 동안... 세대에 걸쳐 번영하는 것을 키우기 위해... **Queen Anne의 lace**의 필드처럼 빠르게 자라고 예쁘게 보이지만 결국 다른 모든 것의 생명을 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 Corinthians

Therefore, since we have these promises, dear friends, let us purify ourselves from everything that contaminates body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out of reverence for God. 2 Corinthians 7:1. 그러므로,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는 몸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룩함을 완성합시다. - 고린도후서 **7:1.**

This verse seems a little like a standalone but it sets up Paul's next section of text which is going to reveal some secret weapons in the healthy cultivation of our souls: Pain, sorrow and regret. 이 구절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바울의 다음 텍스트 부분을 설명하는데 세팅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기르는 몇 가지 비밀 무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고통, 슬픔, 그리고 회한.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s. We have wronged no one, we have corrupted no one, we have exploited no one. I do not say this to condemn you; I have said before that you have such a place in our hearts that we would live or die with you. I have spoken to you with great frankness; I take great pride in you. I am greatly encouraged; in all our troubles my joy knows no bounds. 2 Co. 7:2-4. 우리를 너희 마음 속에 자리잡게 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도 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아무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비난하기 위해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전에 너희가 우리 마음 속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살거나 죽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큰 담배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나는 크게 격려받았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기쁨은 한도가 없습니다. - 고린도후서 **7:2-4**

IN my bible margins I wrote: *What a life!* In all my troubles, my joy knows no bounds. We're so focused on either joy or sorrow, but Paul introduces the idea of both, held in tension within one heart or one soul or one mind. 내 성경 여백에 나는 썼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기쁨은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나 슬픔에만 집중하곤 하지만, 바울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 하나의 생각 안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두 가지 모두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Then he talks more about the trouble:

For when we are into Macedonia, we had no rest, but we were harassed at every turn - conflicts on the outside, fears within. 2 Co. 7:5. 그 다음 그는 고난에 대해 더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우리는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모든 면에서 괴롭혔습니다 - 바깥에서의 갈등, 안에서의 두려움. - 고린도후서 **7:5**.

Been there? Are there? Keep reading...

But God, who comforts the downcast, comforted us by the coming of Titus, and not only by his coming but also by the comfort you had given him. He told us about your longing for me, your deep sorrow, your ardent concern for me, so that my joy was greater than ever. 2 Co. 7:6-7 그런 경험이 있나요? 지금도 그런가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를 안심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디도의 오는 것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오심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에게 주신 안심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나에게 대한 너희의 그리움, 너희의 깊은 슬픔, 나에게 대한 너희의 열렬한 걱정해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의 기쁨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 고린도후서 **7:6-7**.

Titus = trusted coworker of Paul who is facilitating a sort of mediation between him and the church in Corinth. He meets with him in Macedonia and brings news of the church and their current condition. Though Paul is talking about how HE feels in this verse, it's actually telling us what the response of the Corinthians was to the weed-pulling and correction that Paul had brought to them in the form of his first letter. We can learn so much from the church in Corinth: 디도 = 바울의 신뢰하는 동료로, 그는 바울과 코린토 교회 사이의 중재를 돕고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에서 그와 만나서 교회와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소식을 가져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바울이 첫 번째 편지 형태로 그들에게 가져온 잡초 뽑기와 교정에 대한 코린토인들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린토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They receive a letter filled with correction. How do you feel when your neighbor tells you how to park? Or you receive a ticket? Or a friend confronts you to 'do better'. In my job, I have lots of chances to receive correction. Every time, it's a test of how I will respond. The clarifying question for me is: *What is the truth in the pain?* The Corinthians faced this question, too, and decided they would not turn to blame or recrimination, they would not become bitter or defensive, not only would they not kill the messenger, they would view him with ardent concern and with tender, sincere care for his wellbeing. 그들은 교정이 가득한 편지를 받습니다. 이웃이 주차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티켓을 받거나, 친구가 더 잘해달라고 권고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 직업에서는 교정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매번 그것은 어떻게 반응할지 테스트입니다. 제게 중요한 질문은: **고통 속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코린토인들도 이 질문에 직면했고, 그들은 원망이나 비난으로 돌아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열렬한 관심과 그의 복지에 대한 부드럽고 진심어린 관심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Even if I cause you sorrow by my letter, I do not regret it. Though I did regret it - I see that my letter hurt you, but only for a little while - yet now I am happy, not because you were made sorry, but because your sorrow led you to repentance. For you became sorrowful as God intended and so were not harmed in any way by us.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and leaves no regret, but worldly sorrow brings death. 2 Co. 7:8-10 비록 내 편지로 너희에게 슬픔을 끼치더라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후회했지만 - 내 편지가 너희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슬픔이 회개로 이끌려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는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 어떤 방법으로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회개로 이끄는 구원을 가져다주며 후회를 남기지 않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 고린도후서 **7:8-10.**

One of the secret weapons in the cultivation of our souls is: Sorrow - identifying it and what it is trying to produce in our lives. In this text, Paul is specifically talking about the sorrow born of regret. 우리 영혼을 기르는 데 있어서의 비밀 무기 중 하나는: 슬픔입니다 -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생활에서 그것이 무엇을 생산하려고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에서 바울은 특히 회한에서 비롯된 슬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Regret. ("No regrets". Yikes.) Regret is powerful. It can lead us to retrace and redirect our steps. There's a word for this life-giving, soul-freeing process. It's in that very last sentence...회한. ("회한 없음". 어휴.) 회한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재조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과정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and leaves no regret, but worldly sorrow brings death. 2 Co. 7 하나님의 슬픔은 회개로 이끄는 구원을 가져다주며 후회를 남기지 않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 고린도후서 **7:10.**

Their response to the sorrow they felt: earnestness, eagerness to clear yourselves, indignation, alarm, longing, concern, readiness to see justice done. This is the response born of repentance. Metanoia - a change of direction and it's a change that leads to freedom and flourishing - but it's usually initiated by something we do that causes regret. And when we run into something we've done that has caused pain in ourselves or in someone else, we have three choices. 그들이 느낀 슬픔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진심성,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열망, 분노, 경악, 그리움, 걱정, 공정을 실현하려는 준비입니다. 이것은 회개로부터 비롯된 반응입니다. 메타노이아 - 방향의 변화이며, 그것은 자유와 번영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후회를 초래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초래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Three responses to regret:

- **Feed it**
- **Bury it**
- **Use it**

회한에 대한 세 가지 반응:

- 그것을 먹여주다
- 그것을 묻어버리다
- 그것을 활용하다

Feed it...beat yourself up with guilt, shame, remorse, bitterness, anger. This is a natural, but disastrous decision. The enemy uses regret. It's an old weapon that keeps making a new wound. Easy trick to take advantage of us. Don't feed the weeds!

Bury it. Justify, block, blame something or someone else. Distract yourself with something else. Numb yourself with something else. But this never works long term. Don't feed the weeds - but also don't bury them because, like the horse tail in my hand, they don't stay buried and they keep you locked up.

Use it. Repentance! Amend the soil. But repentance can be hard, because it's more than an event or an action or an apology - it's a *change*. It's the imitation of a new way.

그것을 먹여주다... 죄책감, 부끄러움, 회한, 쓰개, 분노로 자신을 죄책감에 몰아넣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파괴적인 결정입니다. 적(악마)은 회한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상처를 계속 만드는 오래된 무기입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쉬운 트릭입니다. 잡초에 물을 주지 마세요!

그것을 묻어버리다. 변명하다, 방해하다, 타인이나 다른 것을 탓하다. 다른 것으로 자신을 방해하다. 다른 것으로 무감각하게 하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잡초에 물을 주지 마세요 - 묻어버리지 마세요. 제 정원의 말꼬리와 같이 묻어두면 묻힌 상태로 있지 않고 당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다. 회개! 토양을 수정하다. 그러나 회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나 행동이나 사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 그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Most of us prefer remorse to repentance. We would rather say, 'I'm sorry. I'm so sorry. I feel really, really awful about what I have done' than actually start doing things differently. Chronic guilt is the price we are willing to pay in order to avoid change." Barbara B Taylor "우리 대부분은 회한을 회개보다 선호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정말로 기분이 나빠요'라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다르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변화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만성적인 죄책감입니다." - 바바라 **B** 테일러

Retrace and redirect your steps.

Walk through the garden of your soul...what feels dry, barren, weedy. Write down the name of that regret. 걸어가며 당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방향을 재조정하세요.

당신의 영혼의 정원을 걷습니다... 무엇이 마른, 불모의, 잡초가 많은지 느껴보세요. 그 회한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Is there anything you need to do that you haven't done to address that regret? Ask forgiveness? Right a wrong? Have a conversation? Set some boundaries? 그 회한을 해결하기 위해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나요? 대화를 나눠야 하나요? 경계를 설정해야 하나요?

----> **Ask the Holy Spirit for insight.**

-What was my responsibility in this? (remembering honestly)

-Is there anything I need to do that I haven't yet (ask forgiveness, make restitution, let go of anger or bitterness in some way, etc.)

-What were the wins - then and now? What I learned? (Remembering correctly)

-Have I been forgiven by You? Have I forgiven myself? (Forgive yourself for mistakes you made - did you do as well as you knew to do? When you know better, do better - but give yourself room for not knowing what you didn't know.

Forgive yourself for not knowing what you didn't know. Forgive yourself for not trusting God enough.

성령님에게 통찰력을 구하세요.

- 이 문제에서 내 책임은 무엇이었나요? (솔직하게 기억하기)
-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용서를 구하기, 보상하기, 어떤 방법으로든 분노나 쓰개를 놓기 등)
- 그 때와 지금의 성취는 무엇이었나요?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올바르게 기억하기)
-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나요? 나 스스로를 용서했나요? (당신이 한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 당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최선을 다했나요? 더 잘 알게 되면 더 잘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당신이 알지 못한 것을 모르는데 대해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대하세요. 당신이 알지 못한 것을 모르는데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않아서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Seeds of repentance grow into a harvest of truth and truth will set you free.

회개의 씨앗은 진리의 수확으로 자라며,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RESPONSE